치 사

제48주년 군승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군포교의 현장에서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용맹정진하고 있는 군승법사님들께 격려와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육·해·공군 전후방 각지에서 군승법사님들에 의해 세워지는 포교와 전법의 원력은 '하나의 등불이 모여 온 세상을 밝히게 된다'는 유마경의 가르침처럼 결코 하나의 작은 등불로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종교인구의 감소와 도덕과 윤리의 몰락, 그리고 배금주의의 확산 속에 인성의 존엄이 무너지고 삶의 기준과 방향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군장병들을 위한 포교와 전법의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48년이라는 군불교의 역사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 왔고, 굴곡의 반세기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겨냈던 오랜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군불교가 오늘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너무도 소중한 시간동안 호국불교라는 거룩한 전통을 저마다의 큰 자부심으로 삼아, 숭고한 정신과 고귀한 희생을 현시대의 삶에서 펼쳐온 군승과 군불교 지도자, 그리고 예비역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3대 군종교구 본사주지인 정우스님의 열정적인 활동 통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군불교의 모습은, 앞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아가 종도라는 자부심과 책무를 새롭게 다지며, 종단에 대한 기여와 군포교의 길을 함께 걷겠다는 실천의지는 전법현장의 커다란 모범이 되어주고 있기도 합

니다.

태동과 성장을 지나 이제 중년의 성숙함에 들어서는 군불교가 지나온 시간에 안주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밑거름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뜻 깊은 전기를 마련해 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고 하신 가르침처럼, 앞으로도 군불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찬 정진과 노력으로 군불교의 발전과 불교의 내일을 위해 진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48주년 군승의 날을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정진으로 국가와 민족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국군장병의 무운장구와 지혜광명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60년 11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